

崔讜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 「東國四詠」 연구의 일환으로 —

成 範 重

I. 머리말

「東國四詠」은 고려 후기의 문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金富軾(1075~1151)·鄭敎(1115 경~1171)·崔讜(1135~1211)·郭預(1232~1286)의 고사를 대상으로 작시한 데에서 비롯되어 及菴 閔思平(1295~1359)·圓齋 鄭樞(1333~1382)·柳巷 韓脩(1333~1384)·陽村 權近(1352~1409) 등을 거쳐 조선 전기의 梅月堂 金時習(1435~1493)에게까지 전승되었던 일련의 작품군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우리 나라[東國]를 대표할 만한 네 인물의 풍류스러운 고사를 읊은 시[四詠]”라는 뜻이다. 그 대상 인물은 모두 고려시대의 권문세가 출신들로서 각기 독특한 故事를 남김으로써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국사영」 작품군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미에 주목하여 이 미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그 작품군이 지니는 총괄적 의미와 성격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검토하고 또 개별적인 고사의 詩的 變容과 傳承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최당의 고사는 그가 눈 속에 소를 타고 海東耆英會 회원들과 함께 松都 근교의 皁岩을 찾아가 놀았다는 사실이 중심이다. 이제현을 비롯한 후대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아름답게 여겨서 즐겨 시적 제재로 삼았고, 또 그것을 「동국사영」의 하나로 꼽았으니 그들은 최당의 이 고사를 통해 사대부 風流의 한 전형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최당의 생애와 그 고사를 일별한 다음, 그 고사를 다룬 작품들을 「동국사영」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해지는 한시까지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후대인들이 최당 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당의 생애

최당은 본관이 昌寧으로 平章事 崔惟清(1095~1174)의 아들이다. 1171년(明宗 1) 殿中內給事를 거쳐 尙書左丞·參知政事·中書侍郎平章事 등을 역임하고 神宗 때에는 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に 이르러 致仕했다.

그의 부친 최유청은 中書侍郎平章事·守司空·集賢殿大學士·判禮部事를 지냈고, 祖父 奭은 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禮部事를 지냈다. 『高麗史』 「列傳」에는 최유청 및 그 자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崔惟清은 毅宗 초에 知奏事に 승진하니 出納에 오직 성실하므로 갑자

1) 줄고,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韓國漢詩研究』 4집(太學社, 1996.

12) 및 「金富軾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1(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2) 참조.

기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兵部事に 나아갔다. 이 때 郎中 鄭絺가 몰래 大寧侯와 결탁한 일에 연좌되어 외지로 유배되게 되었는데 崔惟清은 鄭絺의 妹婿로서 鄭絺가 大寧을 향연하는 데에 器皿을 빌려 주었으므로 臺諫이 大臣의 체모를 잃었다고 탄핵하여 南京留守使로 폄출되었다가 이어 忠·廣 2州 牧使로 폄출되었다. 비록 오래 外職에 머물렀으나 怡然히 自處하니 임금이 그가 충직하여 다른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平章事를 除拜하고자 하였으나 저지하는 자가 있어서 이에 守司空左僕射로 致仕케 하였다. 鄭仲夫의 난리에 문신이 다 살해당하였으나 여러 장수가 평소에 惟清의 덕망에 마음속으로 경복하였으므로 군사를 경계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게 하였으며 期功²⁾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함께 화를 면하였다. 아들이 8명인데 証·詡·謹·讜·詵·讓과 중이 된 두 사람이다. 이 중 証·詡·謹·詵 4명이 급제하였으므로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歲米를 주었으며 証은 禮部尙書, 詡는 閣門祗候, 謹은 錄事, 讓은 雜職署승이 되었고, 讓의 손자는 雍이다. 雍은 典理佐郎·國子司業·國學典酒·世子宮令·副知密直司事·文翰學士를 지냈고, 아들은 元中·元直인데 元直의 아들이 瑩이다. 詵은 明宗 때에 右司諫이 되었고, 參知政事·守太傅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를 지냈다. 아들은 宗源·宗峻·宗梓·宗蕃이니 宗源은 檢校太子詹事요, 宗梓은 左僕射며 그 아들이 昱이요, 宗蕃은 承宣이니 그 아들이 垰이다. 宗峻은 左承宣·左駮騎常侍·知門下省事를 지내고 門下侍中에 이르렀다. 昱은 樞密院事·守司空左僕射·守太傅·中書侍郎平章事를 지냈다. 璘은 門下侍中平章事를 지냈고, 두 번이나 知貢擧를 지냈다.³⁾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최당의 집안은 선조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문벌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부친 최유청은 鄭絺의 妹婿로서 大寧侯와 관련되어 폄출당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의 덕망으로 인하여 무신란 때에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당을

2) 期功은 일년의 喪服과 大功·小功의 喪服이다. 『日知錄』 「禮制」 ‘期功喪去官’에 “古人於期功之喪 皆去官持服”이라 기록되어 있다.

3)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 『譯註高麗史』 8, 太學社, 1987. pp.477~487. 발췌.

포함한 4형제가 등과함으로써 그 어머니는 歲米를 지급받을 정도로 위세를 떨친 가문이었으며, 그의 후손들도 대단한 명망을 받았다고 하겠다.

『고려사』 「열전」에는 최당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謙은 어려서 총명하고 글을 잘 지었다. 明宗 初에 正言이 되어 일을 논하다가 貴倖의 뜻을 거슬러 낙직되었고 이어 起用되어 吏部員外郎이 되어 나가 東南道를 안찰하여 聲績이 있었고 累遷하여 參知政事가 되었다. 神宗 때에 中書侍郞·平章事가 되고 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に 나아가 글을 올려 물러나기를 청하여 드디어 致仕하고 한가히 있으면서 그 齋를 雙明이라 扁額하고 아우 守太傅 詵 및 太僕卿으로 致仕한 張自牧과 東宮侍讀學士 高瑩中, 判秘書省으로 致仕한 白光臣, 守司空으로 致仕한 李俊昌, 戶部尙書로 致仕한 玄德秀, 守司空으로 致仕한 李世長, 國子監大司成으로 致仕한 趙通 등과 함께 耆老會를 만들어 逍遙하며 自適하니 時人이 이들을 地上仙이라고 하고 圖形을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였다. 熙宗 7년에卒하니 나이가 77이요 靖安이라 諡하였다. 아들 臣胤은 尙書, 臣英은 郎中이다. 臣胤의 아들은 璘이다.⁴⁾

여기에는 최당이 致仕한 후 雙明齋를 지어 閑居하면서 아우 崔詵(?~1209) 및 張自牧·高瑩中·白光臣·李俊昌·玄德秀(?~1215)·李世長·趙通 등과 함께 耆老會를 만들어 逍遙自適하니 그 때의 사람들이 이들을 ‘땅 위의 신선’[地上仙]이라고 말하고 圖形을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였다는 사실이 언명되어 있다. 최당보다 17살 아래였으나

4) 少聰悟 善屬文 明宗初爲正言 論事忤貴倖落職 尋起爲吏部員外郎 出按東南道 有聲績 累遷參知政事 神宗時 拜中書侍郞平章事 進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上章乞退 遂致仕閑居 扁其齋曰雙明 與弟守太傅詵 及太僕卿致仕張自牧 東宮侍讀學士高瑩中 判秘書省致仕白光臣 守司空致仕李俊昌 戶部尙書致仕玄德秀 守司空致仕李世長 國子監大司成致仕趙通等 爲耆老會 逍遙自適 時人謂之地上仙 圖形刻石 熙宗七年卒 年七十七 諡靖安 子臣胤尙書 臣英郎中 臣胤子璘(『高麗史』 권99, 「列傳」 권12, <崔惟清> 條).

이웃에 살며 함께 어울렸던 李仁老(1152~1220)는 그의 풍류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 <祭崔太尉文>에서

용감하게 조정에서 물러나와 한가히 살아가는 즐거움은 가히 平泉의 꽃나무와 綠野의 酒詩를 압도할 수 있었다. 나이 八旬이 지나도 붉은 뺨과 흰 머리로 지팡이를 짚고 산에 놀며 촛불을 밝히고 바둑을 두었으니, 보는 이가 다 黃石公⁵⁾이 下邳에 노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돌아보건대 나 같은 小子가 공에게 알려짐은 <峨洋曲>이 있어서 鍾子期를 만난 것 같고, 코 끝에 흙이 묻힌 것을 큰 자귀로 찍어 내는 것과 같았다. 나의 하찮은 글을 문장가들의 울타리에서 놀 수 있다고 하여, 苦海를 다 탐색하여 한 편도 남기지 않고 藥石⁶⁾에 새기고 歌姬에게 가르치니, 만일 공의 賞音이 아니었다면 어찌 絲管에 올리고 金石에 새겨 찬연히 빛나게 하여 북두칠성과 같이 오래도록 전하리요?⁷⁾

라고 하였고, 또 그의 풍류스러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시로 그려내었다.

李仁老, <최태위의 쌍명정>(崔太尉雙明亭)⁸⁾

공을 바로 巢父·許由라 하자니 城郭에 살고
공을 夔龍⁹⁾이라 하자니 숲과 골짜기를 사랑하네.

5) 黃石公은 중국 秦나라 말기에 下邳에서 張良을 만나 그에게 兵書를 주었다고 하는 노인이다.

6) 藥石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과 鍼이다.

7) 其於勇退閑居之樂 可以壓平泉之花木 綠野之酒詩 年過八旬 紅頰白髭 杖策遊山 然燭圍棋 見之者皆以爲若黃石公之遊下邳 顧予小子 脫彼公知 峨洋有曲 得遇子期 鼻端有地 風斤可施 謂僕不腆之文 可以遊作者之藩籬 窮探苦海 無一篇之見遺 饒諸藥石 教以歌姬 儻非我公之賞音 烏得以播絲管勒金石 燦然如星斗以久垂(李仁老, <祭崔太尉文>, 『東文選』 권 109).

8) 『東文選』 권6. 그리고 『三韓詩龜鑑』 卷下에는 이 시의 앞 8구만 수록되어 있다.

千金으로 몇 이랑의 땅을 사서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의 작은 누각을 이루었네.
 깨끗한 바람의 맑은 소리에 한낮의 배개가 시원하고
 푸른 구름은 계속하여 빈 뜰에 떨어지네.
 한가함을 구하고 한가함을 얻어 한가한 맛을 아니
 오래 노닐며 뜰에 나무끼는 작약 꽃을 꿈꾸지 않네.¹⁰⁾
 온갖 꽃 다 진 곳에 한 그루의 소나무요
 흰 구름 깊은 곳에 靑田山의 鶴¹¹⁾이네.
 머리를 돌리니 구구한 꿈과 허깨비 마당인데
 천지를 쫓아다닌 것이 달팽이의 두 뿔¹²⁾ 사이였네.
 醉吟先生¹³⁾은 龍門에서 취하여
 八折灘 흐르는 물을 손수 찢었네.
 六一居士¹⁴⁾는 潁川에 살면서

9) 夔龍은 현달하고 어진 재상을 말한다. 皋夔稷契에서 온 말인데, 이들은 모두 堯舜 때의 名臣이다.

10) 翻階樂은 ‘섬돌에서 필러이는 작약’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을 의미한다. 謝玄暉가 中書省에 入直하여 지은 시에 “붉은 작약 꽃은 섬돌에서 필러이네(紅藥當階翻).”라는 구절이 있다.

11) 靑田鶴은 중국 浙江省 靑田縣의 서북쪽에 있는 靑田山에 사는 鶴이다. 『永嘉記』에는 “靑田雙白鶴 年年生 伏子長便去”라는 기록이 있고, 梁 元帝는 <駕鴛賦>에서 “靑田之鶴 晝夜俱飛 日南之雁 從來共歸”라고 하였다.

12) 蝸角은 달팽이의 뿔이라는 뜻으로 『莊子』 「則陽」에서 戴晉人이 魏惠王에게 한 말 중에 나온다.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나라가 있는데 觸氏라고 하고, 오른쪽 뿔 위에도 나라가 있는데 蠻氏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 두 나라가 땅을 다투어 싸우는데, 전사자가 수만 명이 되고, 패잔병을 쫓아 15일이나 걸렸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有國於蝸之左角者 曰觸氏 有國於蝸之右角者 曰蠻氏 時相與爭地而戰 伏尸數萬 逐北旬有五日而後反).” 따라서 좁은 세상에서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을 蝸牛角上의 爭鬪라고 한다.

13) 醉吟先生은 白樂天인데, 그는 龍門 八折灘에 험한 돌이 있어 배가 많이 파선되므로 그것을 파서 험한 것을 제거하였다.

14) 六一居士는 歐陽修의 號인데, 거문고와 책 등 다섯 가지에 자기 몸을 합하여 六一이라 하였다.

글을 짓고 거문고를 타면서 스스로 즐겼네.
 그러나 어찌 이 庭院에서 蓬瀛¹⁵⁾을 얻어
 난세와 학을 탈 것 없이 허공에 노니는 것만이야 하리요?
 雙明亭 위에서 먼 옛부리를 바라보니
 의연한 한 점 푸른빛은 약속이 있었던 듯하네.

謂公巢許寓城郭 謂公夔龍愛林壑
 千金買斷數畝陰 碧瓦朱欄開小閣
 清風冷泠午枕涼 蒼雲陣陣空庭落
 求閑得閑識閑味 舊遊不夢翻階藥
 群花落盡一株松 白雲深處青田鶴
 回首區區夢幻場 千里追奔兩蝸角
 醉吟先生醉龍門 八節灘流手自鑿
 六一居士居潁川 著書說琴自書樂
 豈如庭院得蓬瀛 不煩鸞鶴遊寥廓
 雙明亭上望遠岑 寸碧依然如有約

이 시에서는 우선 최당이 巢父·許由와 같은 隱者의 기질을 지닌 어진 재상으로서 몇 이랑의 땅을 사서 작은 누각을 이루었음을 밝힌 다음, 그 누각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깨끗하고 맑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사는 그의 모습을 “한가함을 구하고 한가함을 얻어 한가한 맛을 아니 오래 노닐며 뜰에 나부끼는 작약 꽃을 꿈꾸지 않네.”라고 하여 致仕한 후의 한가로운 멋을 즐기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곳은 꽃이 지고 나면 소나무 한 그루가 靑靑하고, 구름이 깊으면 학이 찾아 드는 아름다운 곳임을 밝히고, 달팽이 빨과 같이 좁은 천지를 분주히 쫓아다녔던 지난날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풍류를 龍門에서 손수 八折灘을 뚫던 醉吟先生 白樂天과 潁川에서 글 짓고 거문고 타며 즐겼던 六一居士 歐陽修에 비교하면서, 그 두 인물의 풍류도 蓬萊山과

15) 蓬瀛은 蓬萊山과 瀛洲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선이 산다고 한다.

瀛洲山과 같은 정원에서 신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최당의 풍류에는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雙明亭에서 바라보는 먼 멧부리의 푸른빛이 그 전부터 약속이 있었던 듯하다고 하여 그의 풍류스러운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최당의 풍류가 이인로의 빼어난 필치에 힘입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런 풍류스러운 측면이 일정 부분 있었음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破閑集』에는 최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한다.

鷄林 사람 金生¹⁶⁾의 글씨 솜씨가 신과 같아 草書도 行書도 아닌 것으로 57종 諸家の 體勢를 훨씬 능가했다. 본조의 화엄대사 景赫¹⁷⁾과 樞府의 金立之¹⁸⁾가 초서로 명예를 독차지했으나 仲翼¹⁹⁾이나 周越²⁰⁾의 俗氣를 면치 못하였다. 毅宗 말년에 金나라의 사신 蓋益의 筆勢가 奇逸하여 清河 崔謙이 그 글씨를 구득하여 항상 벽에 걸어 두고 玩賞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빌려 가서 진품은 두고 모사품을 돌려보냈다. 學士가 <東山詩>에서

16) 金生(711~791)은 신라시대의 名筆이다. 『三國史記』 권48, 「列傳」 권 8에 “金生은 부모가 미천하여 그 世系를 알지 못한다. 그는 景雲 2년(신라 聖德王 10, 711년)에 출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글씨에 능하여 평생 다른 재주를 익히지 않았고, 나이 80세가 넘도록 오히려 붓 잡기를 그치지 않았다. 隸書와 行書·草書가 모두 入神의 경지에 들어, 지금까지 종종 그의 글씨가 있어서 학자들이 보배로 전한다(金生 父母微 不知其世系 生於景雲二年 自幼能書 平生不攻他藝 年踰八十 猶操筆不休 隸書行草皆入神 至今往往有眞蹟 學者傳寶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17) 景赫이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18) 立之는 金富賦의 字이다.

19) 仲翼이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 周越은 중국 南北朝 시대의 서예가로서 書品이 높지 못하였다고 한다.

땅에 떡을 그리니 떡 같지 않아도
 어리석은 아이들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 하네.
 (畫地爲餅未必似 要令癡兒出饑水)

라고 읊고 웃으며 넘겨 버렸다.²¹⁾

이 인용문은 최당이 아끼던 蓋益의 글씨를 빌려 간 사람이 진품을 숨기고 모사품을 소장자인 최당에게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최당은 웃음으로 넘겨 버렸다는 일화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최당의 넉넉한 인품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장난 삼아 지었다고 하는 이인로의 시는 다음과 같다.

子雲²²⁾의 봄 지렁이가 덧없이 줄을 이루고
 醉素²³⁾의 놀란 뱀 아득히 떠나갔네.
 꿈을 깬 후 누가 사슴을 얻었는지²⁴⁾ 모르는데
 길이 많다고 부질없이 한탄하다 양만 잃어 버렸네.²⁵⁾

21) 鷄林人金生用筆如神 非草非行 迥出五十七種體勢 本朝華嚴大士景赫 樞府金公立之 以草擅名 然未免仲翼周越之俗氣 毅王末年 大金使人蓋益 筆勢奇逸 清河崔謙購得之 常掛壁以賞之 有人借觀 留其真迹 而影寫還 之 學士誦東山詩 畫地爲餅未必似 要令癡兒出饑水 笑而不問(李仁老, 『破閑集』 卷上).

22) 子雲은 蕭翼의 字이다. 蕭翼은 중국 唐나라 太宗 때 監察御史를 지낸 사람으로 본명은 世翼이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여 무기력한 글씨가 봄 지렁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한다.

23) 醉素는 술에 취한 懷素를 가리킨다. 懷素는 唐나라의 高僧으로 술을 즐겼고 草書에 능하였다.

24) 『列子』 「周穆王篇」에 나오는 고사로서 나무꾼이 사슴을 잡아 언덕 속에 감추어 두고는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꿈에 사슴을 잡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 이야기를 엿들은 사람이 그 장소를 발견하여 사슴을 얻었다고 한다.

25) 『列子』 「說符篇」에 나오는 고사로서 岐路에 기로가 겹쳐 잃은 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子雲春蚓謾成行 醉素驚蛇去渺茫
夢覺不知誰得鹿 路多空嘆竟亡羊

이인로는 이처럼 넉넉한 마음을 지닌 최당의 인품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고사를 끌어와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는 句마다 다양한 故事를 인용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이 당황하게 만들지만 시에 담긴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최당의 고귀한 인품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글씨만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시는 이인로의 말처럼 장난 삼아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당과 평소 친분이 깊었던 이인로는 최당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草書簇子에 대해 또다른 시를 짓기도 했다.

李仁老, <최태위 덕에 소장된 초서족자>(崔太尉家藏草書簇子)²⁶⁾

미친 張旭²⁷⁾이 모자를 벗고 (붓을 휘두르면) 구름과 연기가 서린 듯하여²⁸⁾

묘한 붓은 靈과 통해 신선을 만들어 내네.

明珠가 옛 合浦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²⁹⁾

26) 『東文選』 권20.

27) 張旭은 唐나라 吳興 사람으로 草書를 잘 썼는데, 술을 좋아하여奇怪的 행동이 많았으며 頭髮에 먹을 묻혀 글씨를 쓰는 등 狂態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張顛이라 불렀다. 벼슬은 常熟尉를 지냈다. 文宗 때에 李白의 歌詩, 裴旻의 劍舞, 張旭의 草書를 三絶이라 일컬었다.

28) 이 句는 杜甫가 <飲中八仙歌>에서 “張旭은 석잔 술에 草書의 聖人 [草聖]으로 소문이 나고, 왕공들 앞에서도 모자를 벗어 머리를 드러내고, 붓을 휘두르면 종이에 구름과 연기가 서린 듯하였네(張旭三杯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烟).”라고 한 구절을 變容한 것이다.

29) 孟嘗은 중국 後漢 사람으로 合浦의 太守를 지냈다. 合浦에는 구슬이 생산되었으므로 전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캐어 먹고살았으나, 중간에 태수들이 탐욕을 부려서 구슬로 私利를 채우니, 구슬이 문득 다른 고

공연히 그림의 떡에 입에 군침이 도네.

顛張脫帽落雲烟 妙筆通靈迸作仙
不見明珠還舊浦 空留畫餅出纒涎

이 草書簇子가 앞의 인용문에 나오는 蓋益의 글씨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뛰어난 글씨의 기세를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즉 이 시의 대상이 된 족자가 이인로로 하여금 군침을 흘리도록 할 정도였다는 것은 최당이 <東山詩>에서 그 글씨를 읽고 쓴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이인로가 읊은 족자가 바로 蓋益의 글씨였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족자의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최당의 너그러운 품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Ⅲ. 「동국사영」 관련 고사

최당의 인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그의 풍류를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눈 속에 소를 타고 송도 근교의 皴岩에 나가 놀았다는 고사이다. 이 고사와 관련하여 그가 평소에 소를 타고 놀러 다녔다는 사실은 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李仁老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仁老, <최태위가 소를 타고 놀러 가다>(崔太尉騎牛出遊)³⁰⁾

울로 옮겨 가 버리고 굽어 죽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는데, 孟嘗이 태수가 되어 와서 착한 정치를 행하니 일년만에 옮겨갔던 구슬이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蒙求』에 <孟嘗還珠>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0) 『東文選』 卷20.

곱게 꾸민다고 어찌 반드시 발굽과 뿔을 만들반들하게 하라?³¹⁾
 천천히 걸으며 그 性情의 부드러움을 특히 사랑하네.
 “음매.” 하고 한 번 부르짖어 黃鍾이 울리니
 그래서 당시에 혈떡임을 묻는 사람을 알겠네.

奇飾何須蹄角瑩 徐行偏愛性情馴
 牟然一吼黃鍾動 以識當時問喘人

술을 즐기는 謫仙은 부축 받아 말에 올랐고
 산을 사랑하는 潘閔³²⁾은 나귀를 거꾸로 탔네.
 어찌하여 누른 소 등에 온당하게 타서
 곳곳의 이름난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가?

嗜酒謫仙扶上馬 愛山潘閔倒騎驢
 爭如穩着黃牛背 處處名園任所如

이 시의 첫째 수는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기를 싫어하고 性情의 부드러움을 사랑하는 최당의 일상적 모습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는 재상으로서의 인후한 모습을 그렸다. 특히 후반부는 그가 소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서 발상의 단초를 잡아 前漢의 丙吉처럼 재상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蒙求』 <丙吉牛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前漢의 丙吉은 字가 少卿으로 魯나라 사람인데 宣帝 때 丞相이 되었다. 일찍이 외출하였다가 길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싸우다가 죽고 다친 사람들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병길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병길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소를 쫓고 있는

31) 王君夫는 중국 晉나라 사람으로 그에게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발굽과 뿔을 늘 만들반들하게 하였다고 한다.

32) 潘閔은 중국 宋나라 시인으로 號가 逍遙子로 시에 능했던 인물이다.

사람을 보았다. 소는 헐떡거리며 혀를 빼어 물고 있었다. 병길은 말을 멈추고 아전을 시켜 그 소를 몇 리나 쫓았느냐고 물어 보게 하였다. 그의 휘하 관리가 혼자 말하기를, “승상은 앞과 뒤에서 문기를 잘못하였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병길을 놀리니 병길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서로를 살상하는 것은 長安令이나 京兆尹의 직무로서 마땅히 징계하여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다. 연말에 승상은 관리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賞罰을 행하도록 上奏할 뿐이다. 재상은 작은 일을 관계하지 않나니 도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물을 바가 아닌 것이다. 바야흐로 봄에 少陽의 기운이 움직여 아직 크게 덥지 않은데 소가 가까이 달려와서 더위 먹은 듯 헐떡거리는 게 아닌가 한다. 이것은 기후가 節氣를 잃은 것으로 다치고 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두렵다. 三公은 陰陽을 조화하는 일을 맡나니 마땅히 근심해야 할 바이다. 이런 까닭에 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휘하 관리는 이에 감복하고 병길이 大體를 안다고 생각하였다.³³⁾

李仁老는 陰陽의 조화를 살피는 것을 재상의 任務로 생각하며 행동하였던 丙吉의 故事와 소를 타고 놀러 다니는 최당의 모습을 overlap함으로써 최당이 병길과 같은 재상의 풍모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둘째 수는 자연 속을 한가롭게 유람하는 최당의 풍류를 그렸다. 李白처럼 술이 취해 말에 오르기도 하고, 潘閔처럼 나귀를 거꾸로 타기도 하면서 누른 소를 타고 이름난 곳을 마음대로 찾아다닌다고 했다. 특히 潘閔이 나귀를 거꾸로 탔던 故事는 고려시대 시인들의 작품에서 가끔 인용되던 고사이기도 했다.³⁴⁾ 明나라 都穆이 撰

33) 前漢丙吉字少卿 魯國人 宣帝時爲丞相 嘗出逢清道群鬪者死傷橫道 吉過之不問 吉前行 逢人逐牛 牛喘吐舌 吉止駐 使騎吏問 逐牛行幾里矣 掾史獨謂 丞相前後失問 或以譏吉 吉曰 民鬪相殺傷 長安令·京兆尹職所當禁備逐捕 歲竟丞相課其殿最 奏行賞罰而已 宰相不親小事 非所當於道路問也 方春少陽用事 未可太熱 恐牛近行 用暑故喘 此時氣失節 恐有所傷害 三公典調和陰陽 職當憂 是以問之 掾史乃服以吉知大體(李漢, 『蒙求』 <丙吉牛喘>).

34) 그 한 예로 陳萍의 시 “三峯縹緲是新居 一抹斜暉轉碧虛 已信此行無

한 『南濠詩話』에는 潘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潘逍遙가 錢唐에 寓居하면서 한번은 陝西에 이르러 華山을 보고 작품을 남기기를, “三峯이 허공에 솟은 것을 매우 사랑하여 머리를 쳐들고 읊조리며 바라보다 나귀를 거꾸로 탔네. 옆 사람이 크게 웃고 그를 따라 웃어도 끝내는 집을 옮겨 위를 향해 살고 싶네(高愛三峯插太虛 昂頭吟望倒騎驢 傍人大笑從他笑 終擬全家向上居).”라고 하였다. 이 때 魏野仲이 먼저 陝西에 살다가 逍遙子에게 준 시에 “이로부터 화산의 그림 위에는 다시 潘閔이 나귀를 거꾸로 탄 것이 첨가되겠네(從此華山圖籍上 更添潘閔倒騎驢).”라고 하였으니, 두 사람의 高致를 가히 생각할 수 있다.³⁵⁾

이 詩話を 통해서 보면, 반량은 華山의 勝景이 너무 아름다워 정신 없이 바라보다 그만 나귀를 거꾸로 탄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귀를 거꾸로 탄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에 탐닉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인로는 이 시에서 술을 좋아하던 李白이나 산수의 승경에 탐닉 하였던 潘閔처럼, 최당이 소를 타고 곳곳의 이름난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표현하여 그의 산천유람의 풍류를 기리고 있다. 이 시에는 「東國四詠」에서 언급되는 皁岩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최당이 소를 타고 추암에도 놀러 갔다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추암은 개성 근교에 있던 바위로서 그가 이곳에 놀러 다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대개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추암에 대해서는 蔡壽(1499~1515)의 <遊松都錄>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去住 浪吟猶自倒騎驢”(<潘閔移居>, 『東文選』 권20)를 들 수 있다.

35) 潘逍遙寓居錢唐 嘗一至陝觀華山 留題云 高愛三峯插太虛 昂頭吟望倒騎驢 傍人大笑從他笑 終擬全家向上居 時魏野仲先居陝 有贈逍遙詩云 從此華山圖籍上 更添潘閔倒騎驢 二公之高致可想也(臺靜農撰, 『百種詩話類編』, 臺北:藝文印書館, 1974. p.1013).

丙戌日 아침 비가 금방 개었다. 모두 짧은 옷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炭峴門을 나섰다. 五冠山 골짜기 입구에 이르니 푸른 절벽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었다. 바위틈에서 나온 샘물이 고여 돌고 철쭉꽃 그림자가 물에 거꾸로 비치는 곳을 花潭이라고 한다. 수십 걸음을 더 가면 애써 옷주름을 잡은 듯하여 그 奇詭함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바위가 있으니 그것을 皺巖이라고 하는데, 최태위가 눈 속에 소를 타고 왔던 곳이다. 동쪽 봉우리에 허공에 떠 있듯이 우뚝 선 바위가 있으니 그것을 鼓巖이라고 한다.³⁶⁾

채수의 견문 기록인 이 인용문에 따르면, 추암은 개성 근교의 오관산 아래 있는 곳으로 그 모양새가 옷주름 같이 접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고, 그 주변에는 花潭·鼓巖 등 매우 아름다운 승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추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松京 都城 동북쪽 2, 3리 되는 곳에 있다. 바위 언덕이 병풍을 펼친 것처럼 있고, 모두 가로지른 금이 있기 때문에 추암이라 한다. 그 아래 큰 돌이 많아 앉아서 술을 마실 만하다. 고려시대에 崔讜이 항상 소를 타고 와서 여러 노인들과 여기서 놀았다.³⁷⁾

이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耆英會의 노인들과 함께 최당이 추암에서 놀았음을 말한 부분이다. 이러한 언급은 李齊賢이 쓴 <妙蓮寺石池竈記>에도 나온다. 그 글 가운데, 三藏順庵法師가 益齋에게 “옛날 崔靖安公이 일찍이 雙明耆老會를 열었는

36) 丙戌 朝雨乍晴 俱輕裝短服 出炭峴門 至五冠山洞口 翠崖環擁 石泉瀟洄 而躑躅倒影於水者曰花潭 行數十步 有巖巖巖如髮積 奇詭不可狀者曰皺巖 崔大尉雪中騎牛處也 東峯有石浮空獨立曰鼓巖(蔡壽, <遊松都錄>, 『懶齋集』 권1, 『韓國文集叢刊』 15, p.376).

37) 松京都城東北三兩里 有巖峙于川流之側 如展屏障 皆有橫理 故以名焉 下多巨石 可以坐飲 高麗崔讜每騎牛 與諸老遊于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長湍都護府』, 『山川』, <皺岩>).

데, 그곳이 지금 이 절[妙蓮寺]의 북쪽 산으로 절에서 수백 걸음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³⁸⁾라는 언급이 있다. 妙蓮寺가 三峴 — 즉 松巖山의 동쪽 언덕이 남쪽으로 굽었다가 서쪽으로 꺾이면 낮은 곳은 적고 우뚝한 곳은 많은데, 거기서 또 갈라져 서쪽으로 뻗은 능선 — 에 있었다고 하니³⁹⁾ 추암은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최당은 벗들과 耆老會[耆英會]를 열며 놀았을 것이다. 이 기회는 훗날 이들의 풍류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일 때 하나의 典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權喜(86세) · 權仲和(83세) · 李舒(73세) · 成石璘(67세) · 閔霽(66세) · 金士衡(64세) · 趙浚(59세) · 河崙(58세) · 李居易(57세) · 李茂(50세) 등 10명이 조선 초기인 1404년(太宗 4)에 後耆英會를 결성하면서 최당이 중심이 되었던 고려시대의 기영회를 전범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때 權近이 쓴 글을 보기로 하자.

耆英會가 생긴 지 오래이다. 唐나라 白樂天和 宋나라 文潞公이 모두 洛中の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에 이를 찬미하여 그림으로 그려 전하였다. 우리 동방에서도 前朝가 전성할 때에 太尉 雙明齋 崔讜 공이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난 사대부 7인과 더불어 두 분이 하던 일을 추모하여, 비로소 海東耆英會를 만들어 매월 월홀마다 한 번씩 모여 오직 마시고 읊조리는 것으로 즐길 뿐, 세간의 시비득실을 말하지 않기로 기약하였다. 그 뒤 이를 계승한 자들이 부처를 숭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노인들로 하여금 번거로이 자주 절을 하도록 하였으니, 자못 천명을 알아 미혹되지 않는 군자의 優游自樂하는 뜻을 상실한 것이다.⁴⁰⁾

38) 昔崔靖安公 嘗爲雙明耆老會 其地於今寺之北岡 去寺數百步而近(李齊賢, <妙蓮寺石池竈記>, 『益齋亂藁』, 『韓國文集叢刊』 2, p.556).

39) 京城之鎮曰崙 其東崗南逸 岐而西折 微伏而豐起 又分而南爲三峴 遠而望之 若龍蟠焉 近而視之 若鳳峙焉 據龍之腹 附鳳之膺 有佛者之宮 曰妙蓮寺(李齊賢, <妙蓮寺中興碑>, 위와 같음).

40) 耆英有會尙矣 唐之白樂天 宋之文潞公 俱有洛中之會 當時稱美 作圖以傳之 吾東方在前朝盛時 大尉崔公讜號雙明齋 與豈士大夫之老而自逸者 七人 慕二公之事 始爲海東耆英之會 約每月逐旬一集 惟以觴詠自娛 語

이 인용문은 耆英會의 전통은 중국 당나라의 白樂天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최당을 중심으로 한 海東耆英會에서 비롯되고, 그 후 이를 계승한 자들이 불교를 신봉하는 쪽으로 오도하여 계승하는 바람에, 그 맥이 끊어졌다가 뜻있는 사람들이 최당의 전통을 이어 다시 後耆英會를 결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최당이 致仕한 후 海東耆英會의 인물들과 함께 추암을 비롯한 승경에서 노닐며 풍류를 즐겼던 그 전통이 약 200년 후에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이 내세우는 會中의 禮式이 모두 최당이 주관했던 海東耆英會의 옛 제도를 모방하였다는 것만 보아도,⁴¹⁾ 後耆英會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활동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최당의 활동을 본받아 그것을 재현했다는 사실은 최당이 뜻이 맞는 벗들과 더불어 자연을 완상하면서 그 흥취를 즐기며 노년을 보내는 생활이 당시의 사대부들에게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노후생활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글을 쓴 권근이 『동국사영』 중에 최당의 고사를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⁴²⁾

不及臧否得失 厥後踵而繼之者 爲佞佛之席 至使老者僕僕而亟拜 殊失君子知命不惑優游自樂之意矣(權近, <後耆英會序>, 『陽村集』 권19, 『韓國文集叢刊』 7, p.197). *이 글은 崔恒(1409~1474)의 <耆英圖會坐目>(『太虛亭集』, 『文集』 권1, 『韓國文集叢刊』 9, p.196)에도 실려 있다.

41) 會中禮式 皆倣雙門舊規 備錄如左(위와 같음).

42)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당의 고사를 다룬 權近의 작품은 제목이 『陽村集』뿐만 아니라 『東文選』에도 <金居士雪中騎牛 遊皴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권근이 의도적으로 ‘崔太尉’를 ‘金居士’로 썼거나, 문집을 편찬할 때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金居士’로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韓脩의 文集인 『柳巷詩集』에 批點을 가했던 權近이 韓脩가 ‘崔太尉’를 ‘金侍中’이라 했던 잘못, 즉 姓氏와 人物에 대한 착각을 그대로 계승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金居士’로 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권근이 『동국사영』을 제작한 시기(1403년 9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앞의 인용문에 이어서 李仁老·閔思平·權近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인로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작품은 「동국사영」의 시들이다. 최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이인로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두루 구경하니 모두 仙境인데
 더욱 기이한 것은 추암뿐이네.
 층진 구름은 항상 땅에 깔렸고
 쌓인 玉은 처음으로 函을 열어 보는 듯하네.
 우뚝 솟았으나 天柱는 아니요
 옆으로 퍼진 것이 石帆과 같네.
 물이 맑으니 쪽빛이 절로 물들고
 길이 좁으니 풀은 누가 벨 것인가?
 하늘은 三臺의 귀함을 벌여 놓았고⁴³⁾
 사람은 한결같은 德⁴⁴⁾이 있음을 일컫네.
 노년에 벼슬을 내어 놓고는
 세상과 시고 짝 짓을 달리했네.
 사는 곳이 마침 대문과 골목이 서로 닿았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말고삐를 나란히 하네.
 흥이 나면 큰 소리로 읊조리고 이야기하며
 談笑할 때는 말을 소근거리네.
 짧은 해가 참으로 아까우니
 높은 회포에 스스로 입 다물지 마소.
 금 안장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 길을 재촉하고
 구슬 신으로 높은 바위에 오르네.

월부터 이듬해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와 최당의 海東耆英會에 대한 글을 쓴 시기(1404년)가 비슷한데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43) 하늘에 三臺星이 있는 것을 본받아서 인간에는 三政丞이 있다는 것이다.
 44) 『書經』에 「威有一德」이라는 篇名이 있는데, 다 한결같은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산새는 歌板⁴⁵⁾ 소리에 놀라고
 갠 아지랑이는 춤추는 소매를 따르네.
 서리 같은 흰머리는 白鷺를 속이고
 옥처럼 맑은 뼈는 소나무·전나무와 겨루네.
 저물려는 붉은 해에 향기로운 향아리는 다 비고
 취중에 쓴 글씨를 푸른 절벽에 새기네.
 아름다운 이름을 만고에 전하니
 응당 망하지 않은 凡[不亡凡]⁴⁶⁾을 짝하리.

歷賞皆仙境 尤奇獨皴巖
 層雲長匝地 疊玉始開函
 特秀非天柱 旁陳似石帆
 水清藍自染 逕細草誰艾
 天列三台貴 人稱一德咸
 暮年辭絳冕 與世隔酸醎
 居幸連門巷 行須併轡銜
 遺情吟浩浩 談笑語喃喃
 短景誠堪愛 高懷自莫緘
 金鞍催窈窕 珠履上嶮巖
 谷鳥驚歌板 晴嵐逐舞衫
 霜毛欺鶴鷺 玉骨鬪松杉
 紅日芳尊倒 蒼崖醉墨鐫
 佳名得萬古 應伴不亡凡⁴⁷⁾

이 시는 추암의 정경을 눈에 보이듯이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을 찾아가 즐기는 최당의 풍류스러운 모습을 실감나게 제시하고

45) 歌板은 노래부르며 치는 막대기이다.

46) 『莊子』에 楚王이 凡君과 함께 앉았는데, 楚나라 신하들이 凡나라가 망하였다고 세 번 불렀다. 凡君이 말하기를, “범이 망한 것이 存을 喪失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보면 범은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4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長湍都護府」, 「山川」, <皴巖>.

있다. 먼저 앞부분에서 仙境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이 추암이라고 하여 추암에 대한 인상을 제시한 다음 그곳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즉 추암에는 층진 구름이 항상 땅에 깔렸고 층층이 쌓인 玉같은 바위는 처음으로 函을 열어 보는 듯하다고 했다. 바위가 우뚝 솟았으나 天柱는 아니고, 옆으로 퍼져서 마치 石帆과 같다고 했다. 게다가 물은 맑아 쪽빛이 절로 물들고 좁은 길에는 풀을 베지 않아 무성하다고 했다. 이런 경치는 바로 “하늘은 三台的 귀함을 벌여 놓았고, 사람은 한결같은 德이 있음을 일컫는다.”고 했다. 이런 정경을 노년에 벼슬을 내놓은 다음 세상을 잊고 사는 최당의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어서 시인[이인로]과 최당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즉 그들이 사는 곳은 대문과 골목이 서로 닿아 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흥이 나면 큰 소리로 읊조리고 이야기하며, 담소할 때는 말을 소근거린다고 했다. 이처럼 친밀한 두 사람이 추암에서 놀 때는, 짧은 해가 참으로 아까우니 높은 회포에 스스로 입 다물지 말라고 했다. 함께 높은 바위에 오르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기도 하며 주변 환경을 마음껏 즐긴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붉은 해는 저물고 향기로운 향아리는 다 비었으며 취중에 쓴 글씨를 푸른 절벽에 새긴다고 했다. “취중에 쓴 글씨를 푸른 절벽에 새긴다.”는 것이 바로 閱思 卞의 「동국사영」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벽에 새겨진 시’라고 해석될 “相國題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아름다운 이름을 만고에 전하게 되니 응당 그 실체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풍류를 아는 최당이었기에 당시의 뛰어난 시인이었던 이인로로부터 이와 같은 극찬을 받을 수 있었고, 뒷날 이제현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에게 그 풍류가 칭송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IV. 최당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

1. 「동국사영」 작품군에 투영된 최당 고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최당을 다룬 작품에서 언급되는 것은 최당이 海東耆英會의 구성원들과 함께 눈이 올 때 개성 근교의 추암에 나가 놀았다는 고사이다. 관료로서의 화려한 활동을 마치고 치사한 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긴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어떤 측면이 후대 시인들의 양모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국사영」에 들어 있는 최당을 다룬 작품은 그 제목이 대개 <① 태위 쌍명재 최당이 ② 눈 속에 소를 타고 ③ 개성 북쪽의 추암에서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시인에 따라 그 제목이 상당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음이 주목된다. ②와 ③은 큰 변화 없이 나타나지만 ①은 그 변모과정이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생각되므로 그것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당 고사를 다룬 시의 제목

| 제목 시인 | ① 누가 | ② 언제, 어떻게 | ③ 어디서, 무엇을 |
|----------|--------|-----------|------------|
| 閔思平 | 崔大尉 | 冒雪 | 游城北皴岩 |
| 鄭 樞 | 雙明崔大尉謙 | 雪後騎牛 | 游城北皴岩 |
| 韓 脩 | 金侍中 | 雪中騎牛 | 遊皴巖 |
| 權 近 | 金居士 | 雪中騎牛 | 遊皴岩 |
| 金時習 | 金居士 | 雪中騎牛 | 遊皴巖 |

이 표에서 보듯이, ②와 ③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②는 민사평의 시는 ‘冒雪(눈을 무릅쓰고)’로, 정추의 시는 ‘雪後騎牛(눈 온 뒤 소를 타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雪中騎牛(눈 속에 소를 타고)’로 되어 있어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도 민사평과 정추의 작품은 ‘游城北皴岩(성 북쪽의 추암에서 놀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城北’이 빠졌지만 굳이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장소를 판단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①은 ②, ③과는 달리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민사평과 정추의 시는 다같이 雙明齋 太尉 崔謙을 지칭하고 있으나, 한수는 ‘金侍中’, 권근·김시습은 ‘金居士’라고 하여 우선 대상 인물의 성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신분도 시중과 거사로 나타남으로써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수의 시에서 최당이 ‘金侍中’⁴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착각으로 보이지만,⁴⁹⁾ 권근과 김시습의 시에서 ‘김거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앞의 논문에서

권근의 작품에 나오는 ‘거사’는 ……(中略)…… 여기에는 고관대작을 지낸 인물이라는 의미가 없다. ‘김시중’으로부터 ‘김거사’로의 변화는 조선시대에 들어, 사대부의 삶의 지향이 굳이 出仕라는 立身揚名의 측면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전원의 退居 또는 隱居를 선택한 處士로서의 心身修養도 삶의 의미를 지닌다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다 음에야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권근의 작품에서 이렇게 ‘시중’이 ‘거사’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김시습의 작품에 그대로 계승되어 고착화되는 것은 문학사나 사상사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⁵⁰⁾

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행적을 두고 지은 작

48) 이 때의 김시중은 金富軾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9) 여기에 대해서는 즐고,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韓國漢詩研究』 4, 太學社, 1995. 12)의 주 88) 참조.

50) 위의 논문, pp.312~313.

품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문학작품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민사평의 작품을 보면, 그 제목이 <崔大尉冒雪 游城北皴岩>⁵¹⁾으로 되어 있다.

천 척 높은 바위가 북산에 솟았나니
 옛 賢人이 남긴 자취는 그리기도 어렵네.
 相國이 시를 지은 후로
 얼마나 많은 행인들이 가리키며 보았는가?

千尺雲根聳北山 古賢遺跡畵應難
 自從相國題詩後 多少行人指點看

이 시는 최당의 풍류를 기리는 것이 중심이 된다. 起句에서는 皴岩의 우뚝한 모습을 그렸고, 承句에서는 기구에서 제시된 추암에 남긴 최당의 자취를 형용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轉句에서는 그곳에서 최당이 시를 지은 사실을 지적한 후, 結句에서는 많은 행인들이 그곳을 가리키며 보았다고 했다. 이 시에서 최당이 지었다고 하는 시가 현재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가 耆老會의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노닐며 많은 시를 지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민사평에게는 중앙의 중요 관직을 역임하고 致仕한 후, 기로회를 조직하여 풍류를 즐겼던 최당의 모습이 매우 이상적이었을 뿐 아니라 또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추의 작품은 제목이 <雙明崔大尉讜雪後騎牛 游城北皴岩>⁵²⁾으로

51) 閔思平, 『東國四咏 益齋韻』, 『及菴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3, p.61.

이 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長湍郡護府』에 실려 있다. 또 劉在建(1793~1880)편, 『古今詠物近體』 권6, 『岩類』(亞細亞文化社 影印, 1981, v.2, p.22)에 <長湍皴岩>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2) 鄭樞, 『東國四咏』, 『圓齋稟』 卷上, 『韓國文集叢刊』 5, p.196.

되어 있는데, 그 細註에 “좌주 익재 시중이 명하여 읊다(座主益齋侍中命賦).”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는 그의 좌주 李齊賢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산의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눈이 배나 쌓였는데
물을 넘고 구름을 뚫어 길은 얼마나 돌았는가?
袁安의 높은 베개의 홍취를 말하지 말라.
소를 타고 시를 찾으려 오는데 무엇이 거리끼리요?

兩山松櫟雪培堆 蕩水穿雲路幾回
莫說袁安高枕興 何妨牛背覓詩來

이 시는 눈이 오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추암을 찾아오는 최당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기구에서는 산의 나무에 눈이 가득 쌓인 모습을 그리고, 승구에서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물을 건너고 구름을 뚫으며 구불구불한 길을 찾아오는 최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구에서는 눈과 관련된 인물, 곧 後漢의 袁安을 끌어와 최당의 홍취는 袁安보다 낫다고 했다. 원안과 관련된 고사는 다음과 같다.

袁安이 아직 빈천한 때 눈이 一丈이 넘게 쌓이자, 洛陽令이 순시하며 보니 사람들이 모두 눈을 치우고 있었다. 어떤 乞食者가 袁安의 문에 이르러 나다니는 길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해서 사람을 시켜 눈을 치우고 들어가 보니 袁安이 누워 있었다.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니, 袁安은 “큰 눈이 와 사람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지만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洛陽令은 그가 어질다고 생각해서 천거하여 孝廉으로 삼았다고 한다.⁵³⁾

53) 袁安未達時 大雪積地丈餘 洛陽令身出按行 見人家皆除雪出 有乞食者至袁安門 無有行路 謂安已死 令人除雪入戶 見安僵臥 問何以不出 安曰 大雪人皆餓 不宜干人 令以爲賢 舉爲孝廉(『後漢書』, <袁安傳>).

원안이 이처럼 어린 나이에도 폭설 속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미약한 처지 때문에 그냥 드러누워 있었던 데 대해 洛陽승으로 대표되는 일반인들은 모두 그의 어짐을 칭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袁安의 고사를 공리적인 사고라는 측면 보다는 눈 때문에 집에 드러누워 있었던 소극적 행동이라는 의미로만 파악하여 그것을 최당의 눈 속에서의 적극적 행동과 대비시키고 있다. 즉 이 시의 결구에서 “소를 타고 시를 찾으려 오는데 무엇이 거리끼리요?”라고 하여 눈 같은 악천후 정도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음을 지적하여 원안의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행동보다는 눈 속을 헤치고 자연의 승경을 찾아오는 최당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연 완상의 풍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수의 작품은 제목이 <金侍中雪中騎牛 遊皴巖>⁵⁴⁾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체가 ‘崔太尉’에서 ‘金侍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시도 정추의 작품과 같이 눈 속에 소를 타고 찾아가는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솔길은 뒤엎쳐서 돌 사이로 들고
 여원 소는 눈을 밟고 오르기에 지쳤네.
 어찌 오직 안온하게 걸터앉아 기울고 뒤집힘이 없으리요?
 시를 짓는 눈이 장차 수많은 구슬 산을 다 살피려 하네.

線路縈紆入石間 羸牛踏雪倦躋攀
 豈唯穩跨無傾覆 詩眼將窮萬玉山

이 시의 기·승구는 돌 사이로 들어가는 오솔길의 모습과 쌓인 눈을 밟고 가는 여원 소의 고통을 그려내고 있다. 전구에서는 소를 타고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華山

54) 韓脩, 「奉和益齋相國東國故事四詩,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 5, p.260.

의 승경을 구경하느라 나귀를 거꾸로 댔던 潘閔처럼 소를 타고 가는 길에도 기울고 뒤집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까닭은 눈에 쌓인 수많은 산들, 곧 玉山을 모두 살피려 한다고 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겨울 설경을 즐기려는 ‘金侍中’[사실은 崔讜]의 집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이상 3인의 작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최당의 皴岩에서의 풍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사평의 시는 추암에 전해지는 최당의 풍류를 후세의 사람들이 추억한다는 점이 중심이고, 정추와 한수의 시는 눈 속에서 고통스러이 추암을 찾아가는 최당의 모습을 그린 다음 그것이 풍류를 추구하는 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 점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에 덮인 수많은 산들의 모습을 모두 보려는 뜻이 숨겨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추와 한수의 작품은 굳이 그 대상이 皴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題材와 시상의 관련성이 그렇게 밀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어진 권근과 김시습의 작품은 이상의 작품들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권근의 작품은 제목이 <金居士雪中騎牛遊皴岩>⁵⁵⁾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崔讜을 나타내던 ‘崔太尉’(민사평·정추의 작품)가 ‘金侍中’(한수의 작품)을 거쳐 ‘金居士’로 바뀐 것은 단순한 인물의 교체라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태위’나 ‘김시중’은 다같이 최고관료의 인물, 또는 致仕한 宰相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김거사’는 결코 그러한 인물의 범주로는 볼 수 없다. ‘거사’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학예가 도저하면서도 숨어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⁵⁶⁾ 이상의 내

55) 權近, 『陽村集』 권9, 『韓國文集叢刊』 7, p.108. 이 시는 『東文選』 권 21과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 「長湍都護府」에 수록되어 있다.

56)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상, 중보판, 三省出版社, 1979.

포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가 최당의 고사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품에서 드러나는 풍류는 致仕한 老宰相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자연의 취락을 벗삼는 處士의 풍류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눈 속의 시내와 산이 하도 기이하여
 놀러 나가 소 등에서 느리게 가는 대로 맡겨 두네.
 皴岩은 아마도 인간 세상이 아니어서
 길이 儒仙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네.

雪裏溪山特地奇 遊觀牛背任行遲
 皴岩可是非人境 長使儒仙爲賦詩

이 시는 기구와 승구에서 눈 내린 溪山의 경치가 너무 기이하여 그 속에서 느릿느릿 소를 타고 유람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려 낸 다음, 전구와 결구에서는 皴岩의 경치가 인간 세상이 아닌 別世界인지라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이 시의 내용만으로 보면, 결코 致仕한 老宰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겨울철 쌓인 눈 속에 소를 타고 유람하는 한가로운 隱士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李白이 <山中問答>에서 말한 “別有天地非人間”의 시상을 끌어와 道家的 風을 가미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구에서는 儒仙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자연 속에서 閑遊하는 處士의 人物의 모습을 神仙의 風度와 연결시키고 있다.⁵⁷⁾

p.133.

57) 한편, 권근이 한수가 知貢擧였을 때 그를 보좌하였고, 젊어서 출입하던 座主 李穡의 집에서 정추·한수 등이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한수의 문집인 『柳巷詩集』에 批點을 담으로써 그의 시문을 자세히 검토할 기회가 있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근의 이 작품에 나오는 ‘김거사’는 한수의 작품에 나오는 ‘김시중’의 착각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한수의 작품과 같이 致仕한 老宰相의 여유로운 風度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

김시습의 작품은 제목이 <金居士雪中騎牛 遊皦皦>⁵⁸⁾이라고 되어 있어서, 권근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시의 주인공이 ‘金居士’로 나타나고 있다.

눈 속에 소를 타고 가는 대로 따라가니
천 리 강산에 구슬 가루가 흩날리네.
袁安이 드러누워 사람을 구하지 않은 뜻이
어찌 鄭公의 다리 위에서의 情趣만 할 것인가?

雪裏騎牛信步行 江山千里散飛瓊
袁安僵臥不干意 那及鄭公橋上情

이 시는 기구와 승구에서 휘날리는 눈 속을 소를 타고 가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 다음, 전구와 결구에서 袁安과 鄭公을 대비시키고 있다. 袁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 나이에도 눈 속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할 힘이 없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드러누워 있었던 後漢의 인물로서, 그의 행동은 큰 뜻을 품고도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데 대한 自愧感, 곧 公利的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袁安의 이러한 뜻이 ‘鄭公의 다리 위에서의 情趣’에 미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공리적인 가치보다는 鄭公의 풍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鄭公의 정체이다. 필자는 鄭公이 鄭道傳(?~1398)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⁵⁹⁾ 그리고 ‘鄭公의 다리 위에서의 情趣’는 바로 정도전의 시 <訪金居士野居>⁶⁰⁾에 나오는 시

나타나는 ‘김거사’와 ‘김시중’의 차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58) 金時習, 『詠東國故事』, 『梅月堂集』, 『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13, p.113. 『국역매월당집』 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149)에서는 ‘金居士’를 ‘金克己’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59) 拙稿, 앞의 논문, p.314.

적 정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가을 그들은 막막하고 사방 산은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땅에 가득히 붉었네.
 시내 다리에 말 세우고 돌아갈 길 묻나니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을 모르네.

秋陰漠漠四山空 落葉無聲滿地紅
 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

이 시는 『三峯集』의 <重九> 시 細註에 「錦南雜詠」이라고 특기되어 있는 작품 중의 하나로서,⁶¹⁾ 『東文選』·『國朝詩刪』·『箕雅』·『大東詩選』 등에도 실려 있는 정도전의 대표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이다.⁶²⁾ 「錦南雜詠」은 정도전이 호남 지방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임이 『三峯集』 권1의 <送盧判官> 시의 주석에서 확인된다.⁶³⁾ 그는 1375년(禡王 1) 親元排明을 고집하는 李仁任·慶復興 등에 반대하다가 會津縣⁶⁴⁾에 2년 동안 유배된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의 김거사가 호남의 회진현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시와 함께 실린 작품 <訪金益之> 시의 金益之가 김거사와 동일인이라면 그의 字는 益之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訪金益之>시의 분위기가 이 시의 그것과 흡사하다.

60) 『三峯集』 권2, 『韓國文集叢刊』 5, p.305.

61) 以下八首錦南雜詠(위와 같음).

62) 洪萬宗은 이 시에 대해 ‘詩中有畫’라는 평을 담으로써 그림처럼 아름답다운 정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洪萬宗, 『小華詩評』 卷上, 趙鍾業편,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 p.317).

63) 以下八首錦南雜詠 皆在貶所作(『三峯集』 권1, 『韓國文集叢刊』 5, p.291).

64) 會津縣은 현재의 전라남도 羅州이다.

鄭道傳, <김익지를 찾아가다>(訪金益之)⁶⁵⁾

빈터의 연기는 어둑하고 나무는 들쭉날쭉하고
풀이 사람의 자취를 덮어 길이 없어지려 하네.
그대 집에 가까이 가도 도리어 알 수가 없는데
농부는 돌아서서 작은 다리 서쪽을 가리키네.

墟煙暗淡樹高低 草沒人蹤路欲迷
行近君家猶未識 田翁背指小橋西

이 두 시를 비교해 보면, 다같이 자연 속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길을 잃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訪金居士野居>의 전구와 <訪金益之>의 전·결구는 다리 곁에서 서성이는 시인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면 정도전의 <訪金居士野居>는 그가 호남의 회진현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지방의 인물이었던 ‘김거사’의 野居를 찾아가서 지은 것으로 단풍 진 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시습은 이처럼 최당과 같은 풍요와 여유 속의 호사한 중앙 노정객의 풍류를 간난 속에서 지방에 은거하는 인물을 찾아보는 유배객의 풍류로 환치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있다. 따라서 김시습에 이르면, 중앙 정부의 고관대작을 지낸 후 노년에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보다는 중앙 정부의 고관대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의 입장을 투영한 새로운 인물 유형을 모색하고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전의 유배지에서의 모습을 끌어들여 자신의 시대에 요구되는 가치 지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내용의 시인 만큼 이 시는 제목에 巖岩이라는 특정 지명이 들어가 있으나, 내용에서는 전혀 그러한 언급 없이 시인의 의도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65) 『三峯集』 권2, 『韓國文集叢刊』 5, p.306.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제작된 권근과 김시습의 작품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던 작품들과는 또다른 시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근의 작품은 한편으로 韓脩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시에 표현된 내용만으로 보면 자연 속에서 閑遊하는 處士의 人物의 모습을 神仙의 風度와 연결시키고 있고, 김시습의 작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권력과는 거리가 먼 유배객의 풍류를 공리적 가치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시인이 살아가는 당대에 요구되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2. 기타 작품에 투영된 최당 고사

최당의 고사는 「동국사영」에 실린 작품들 이외의 작품에서도 시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은 사대부들 사이에 구전되다가 그 고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시를 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 속에 편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몇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成倪(1439~1504), <추암>(皴巖)⁶⁶

雙明齋의 지난 일은 아득히 자취가 없고
 울퉁불퉁한 바위 골짜기에 철쭉꽃이 붉었네.
 소 등에서 시 읊으며 눈을 타고 갔는데
 술을 싣고 봄바람을 대하는 것은 어떠한가?

雙明往事渺無蹤 巖壑參差躑躅紅
 牛背吟詩乘雪去 何如載酒對春風

이 시는 김시습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성현의 작품이지만 시의 내

66) 『虛白堂集』 권5, 『韓國文集叢刊』 14, p.274.

용은 판이하다. 김시습이 작품에서 직접 최당의 고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이 시에서는 雙明齋 崔讜의 고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당이 추암을 찾은 것은 눈 쌓인 겨울이었으나 성현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철쭉꽃 피는 봄이었기 때문에, 시적 의경도 그것에 걸맞게 설정되어 있다. 이 시의 기구와 전구는 최당의 일을 언급하고, 승구와 결구는 자신의 일을 언급하여 과거와 현재, 겨울과 봄에 어울리는 모습과 풍류라는 대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는 최당이 겨울철 눈 속에 소를 타고 추암에 놀았던 일과 현재 시인 자신이 봄날 철쭉꽃 핀 속에 술을 마시며 봄바람을 대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풍류스러운가를 묻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현은 풍류의 상징처럼 전해지는 최당의 일화를 바탕으로 봄나들이의 풍류를 극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蔡壽(1499~1515), <추암>(黷巖)⁶⁷⁾

바위투성이의 높은 숲에 가는 길이 어려운데
 때마침 아름다운 곳을 만나 또 서성거리네.
 시냇가의 석벽에는 丹青이 젖어 있고
 말 머리의 산봉우리에는 鈎戟이 모여 있네.
 흥을 타고 아득하게 눈 속을 갔는데
 봄을 찾아 술을 싣고 바라봄이 무엇과 같은가?
 채찍을 휘두르며 다시 靈通寺를 향해 가니
 갑자기 안개 낀 洞府가 넓음을 깨닫네.

石卓礪雲林行路難 時逢佳處又盤桓
 溪邊石壁丹青潤 馬首峯巒鈎戟攢
 乘興謾衝雪去 探春那似載壺看
 揮鞭更向靈通去 陡覺烟霞洞府寬

67) 『懶齋集』 권2, 『韓國文集叢刊』 15, p.404.

이 시는 추암을 보고 느낀 바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로까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首聯과 頷聯은 추암을 찾아가는 길과 추암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부분이고, 頸聯은 최당이 눈 속에서 소를 타고 추암을 찾았던 일과 자신이 봄날 술을 가지고 찾아온 모습을 대비한 부분이며, 尾聯은 다시 길을 떠나며 골짜기가 넓음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미련이 바로 최당의 雪中騎牛와 현재의 자신의 探春行을 대비한 부분이다. 앞의 성현의 시와 마찬가지로 최당의 눈 쌓인 겨울 나들이와 자신의 봄나들이의 풍류 중 어느 것이 더 풍류스러운지를 물어 자신의 풍류스러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曹偉(1454~1503), <추암>(黓岩)⁶⁸⁾

그 해에 소 등에서 새 시를 찾으니
 눈이 산봉우리를 가리고 白玉이 둘러쌌네.
 구슬뜨게도 雙明齋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바위 가득한 붉은 비에 낙화가 날리네.

當年牛背覓新詩 雪擁峯巒白玉圍
 惆悵雙明今不見 半岩紅雨落花飛

이 시는 꽃 지는 봄에 추암을 찾아 온 시인이 이곳에 전해지는 최당의 고사를 추억하는 懷古調의 작품이다. 이 시의 기구와 승구는 최당이 이곳을 찾아왔을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전구와 결구는 시인의 눈에 비친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최당이 소를 타고 이곳에 왔을 때는 눈과 얼음이 쌓인 한겨울이었음에 대해, 조위가 이곳을 찾아왔을 때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계절, 즉 붉은 꽃이 바람에 날리는 늦봄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과거와 현재, 겨울과 봄이라는 대조를 통해 추암 주변의 경치와 회고의 정회

68) 『梅溪集』 권1, 『韓國文集叢刊』 16, p.296.

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최당 관련 고사를 다룬 작품들은 한결같이 눈 속에 소를 타고 추암을 찾아온 최당의 풍류와 꽃이 피거나 지는 봄날에 추암을 찾아온 시인들의 모습을 대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을 완상하는 놀이가 봄, 가을이 중심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소를 타고 눈 쌓인 산 속을 유람하였던 최당의 풍류가 이색적으로 보였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최당의 고사는 시인 자신의 풍류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작품들에서 다루어진 최당의 풍류가 「동국사영」에서 다루어진 최당의 풍류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동국사영」에서의 최당의 풍류가 金富軾·鄭敍·郭預의 고사와 함께 총체적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동국사영」 이외의 작품들에서 다루는 최당의 풍류는 다만 눈 속에 소를 타고 추암에 놀았다는 사실만이 단편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국사영」 이외의 작품들에서는 최당의 고사가 자신의 풍류스러움을 드러내는 보조자료로 이용될 뿐이며, 최당의 풍류 자체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주요한 대상이 되는 최당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기로 하겠다.

최당은 수태보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판이예부사를 지낸 崔旼의 손자이고, 중서시랑평장사·수사공·집현전대학사·판예부사를 지낸 崔惟淸의 아들로서 상서좌승·참지정사·중서시랑평장사 등

을 역임하고 신종 때 수태위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로 致仕했던 인물이다. 그는 치사한 후 雙明齋를 지어 한거하면서 아우 崔誥 및 張自牧·高瑩中·白光臣·李俊昌·玄德秀·李世長·趙通 등과 함께 耆老會를 만들어 逍遙自適하여 그 풍류가 ‘땅 위의 신선’[地上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이 기로회는 훗날 權喜·權仲和·李舒·成石璘·閔霽·金士衡·趙浚·河崙·李居易·李茂 등 10명이 1404년(太宗 4)에 後耆英會를 결성할 때의 전범이 되기도 하였다. 『과한집』에는 그가 아끼던 蓋益의 글씨를 빌려 간 사람이 진품을 숨기고 모사품을 돌려주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도 웃음으로 넘겨 버렸다는 일화가 있어서 그 넉넉한 인품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최당이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기로회의 회원들과 함께 눈 속에 소를 타고 송도 동북쪽의 皴岩에서 놀았다는 풍류 때문이다. 그의 풍류는 이미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인로의 <崔太尉騎牛出遊>시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인로는 이 시에서 술을 좋아하던 李白이나 산수의 송경에 탐닉하였던 潘閔처럼, 최당이 소를 타고 곳곳의 이름난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여 그의 산천유람의 풍류를 기리고 있다. 그가 관료로서의 화려한 활동을 마치고 치사한 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후대의 시인들에게 이상적인 노후생활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최당 고사의 시적 변용과 계승을 살펴보면, 그 주된 대상이 최당이 추암에서 눈 속에 소를 타고 노닐었다는 것이지만, 「동국사영」 작품군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제목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는데, 閔思平과 鄭樞는 각기 ‘崔太尉’, ‘雙明崔太尉謙’이라고 하여 다같이 최당을 지칭하고 있으나, 韓脩은 ‘金侍中’, 權近과 金時習은 ‘金居士’라고 하여 우선 대상 인물의 성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신분도 시종과 거사로 나타남으로써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수의 시에서 최당이 ‘金侍中’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착각으로 보이지만, 권근과 김시습의 시에서 ‘김거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동일한 인물의 동일한 행적을 두고 지은 작품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문학작품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민사평·정추·한수의 작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최당의 추암에서의 풍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사평의 시는 추암에 전해지는 최당의 풍류를 후세의 사람들이 추억한다는 점이 중심이고, 정추와 한수의 시는 눈 속에서 고통스럽게 추암을 찾아가는 최당의 모습을 그린 다음 그것이 풍류를 추구하는 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 점에서 일치한다. 한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에 덮인 수많은 산들의 모습을 모두 보려는 뜻이 숨겨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조선시대에 들어와 지어진 권근과 김시습의 작품은 이상의 작품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 두 작품은 제목에 ‘김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작품들에 나오는 ‘최태위’나 ‘김시중’이 다같이 최고관료의 인물, 또는 치사한 재상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김거사’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학예가 도저하면서도 숨어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이상의 내포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들에서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자연의 취락을 벗삼는 처사의 풍류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권근의 작품은 자연 속에서 閑遊하는 처사적 인물의 모습을 신선적 풍도와 연결시키고 있고, 김시습의 작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권력과는 거리가 먼 유배객[鄭道傳]의 풍류를 공리적 가치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시인이 살아가는 당대에서 요구되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시습의 작품은 중앙 정부의 고관대작을 지낸 후 노년에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보다는 중앙 정부의 고관대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의 입장을 투영한 새로운 인물 유형을 모색하고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전의 유배지에서의 모습을 끌어들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지향을 드러

낸 것으로 이해된다.

또 「동국사영」에 들지 않으면서 최당 고사를 다룬 成倪·蔡壽·曹偉의 <皴岩>은 다같이 눈 속에 소를 타고 추암을 찾아온 최당의 풍류와 꽃이 피거나 지는 봄날에 추암을 찾아온 시인들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최당 고사는 시인 자신의 풍류를 드러내기 위한 역사적 제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다루어지는 최당의 풍류가 김부식·정서·곽예의 고사와 함께 총체적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여타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지는 최당의 풍류는 그가 단지 눈 속에 소를 타고 추암에서 놀았다는 사실만이 단편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參考 文獻

『高麗史』

『東文選』

『蒙求』

『三國史記』

『三韓詩龜鑑』

『新增東國輿地勝覽』

『譯註高麗史』, 太學社, 1987.

『列子』

『莊子』

『破閑集』

『後漢書』

權近, 『陽村集』, 『韓國文集叢刊』 7.

金時習, 『국역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梅月堂集』, 『韓國文集叢刊』 13.

臺靜農撰, 『百種詩話類編』, 臺北:藝文印書館, 1974.

閔思平, 『及菴詩集』, 『韓國文集叢刊』 3.

成範重, 「金富軾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12.

——, 「東國四詠의 淵源과 傳統」, 『韓國漢詩研究』 4집, 太學社, 1996. 12.

成倪, 『虛白堂集』, 『韓國文集叢刊』 14.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증보판, 三省出版社, 1979.

劉在建撰, 『古今詠物近體』, 亞細亞文化社 影印, 1981.

李齊賢, 『益齋亂藁』, 『韓國文集叢刊』 2.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5.

鄭樞, 『圓齋藁』, 『韓國文集叢刊』 5.

曹偉, 『梅溪集』, 『韓國文集叢刊』 16.

蔡壽, 『懶齋集』, 『韓國文集叢刊』 15.

崔恒, 『太虛亭集』, 『韓國文集叢刊』 9.

韓侑,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 5.

洪萬宗, 『小華詩評』, 趙鍾業撰,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